

# 적대성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충동성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최혜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mpulsivity

Hyera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를 통하여 적대성과 강박증상의 관계를 알아보고, 특히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갖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대해 끼치는 영향에 있어서 충동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도 검증하고자 했다. 150명의 온라인 학생을 대상으로 Buss Durkee Hostility 척도, 강박증상 척도 개정판, 바렛 충동성 척도를 실시하여 적대성, 강박증상, 충동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150명의 온라인 대학생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자료에 대해 상관과 조절다중회귀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적대성과 강박행동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였고 강박사고는 외현적 적대성 및 내현적 적대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어서 충동성이 조절 변수로서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한 분석 결과, 충동성은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만 조절역할을 하였고 외현적 적대성의 영향에서는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o clarify the differential role of overt hostility and covert hostility on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mpulsivit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ity measures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e Buss Durkee Hostility Inventory (BDHI), Revised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OCI-R), and Barratt Impulsivity Scale (BIS) were used to measure hostility,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impulsivity, respectively. Data were collected from 150 online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using the correlation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overt host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bsessive thoughts; covert host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bsessive thoughts and compulsive behavior. In addition, the regression results, which set the hostility variables as the predicting variable, revealed covert hostility to increase obsessive thinking and compulsive behavior, whereas overt host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both variables. Impulsivity was found to function as a moderator in the prediction of covert hostility on obsessive thought. With the resul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hostility, compulsive behavior, covert hostility, impulsivity, obsessive thought, overt hostility.

### 1. 서론

강박장애는, 불안과 고통을 유발하는 반복적이고 침

투적인 사고(강박사고)와, 불안 등의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복적이고 과도한 행동(강박행동)을 주요증상으로 하는 장애로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Corresponding Author : Hyera Choi(Seoul Cyber Univ.)

Tel: +82-2-944-5034 email: chera@iscu.ac.kr

Received December 5,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Revised (1st December 20, 2017, 2nd December 27,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8

Mental Disorders, 5<sup>th</sup> edition(이하 DSM-5)이전까지는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등과 더불어 불안장애의 하위 장애로 분류되었다[1].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증상의 표현형(phenotype) 차원이나 내표현형(endophenotype)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강박장애가 ‘불안’이라는 증상이 중심에 있는 다른 불안장애들과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고 보았고 이들은 강박장애가 강박 관련장애(Obsessive-Compulsive Related Disorder)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의 상당부분이 DSM-5 체계에서 채택되었다[2-6]. 강박장애가 불안장애와는 증상원인에 있어서 차별적인 면이 있다고 본 가장 초기의 학자 중 한명은 Freud라 할 수 있다. Freud는 인생초반의 억압된 갈등, 적개심 등이 재활성화된 것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 보았다[7]. Freud의 다양한 정신분석학자들도 강박장애 증상의 원인은 억압된 강한 분노라고 보았다[8-10].

강박장애는 학술적인 문헌에서나 대중매체 등에서 흔히 청결과 정리정돈에 극도로 집착하며, 상황이 자신의 예견과 다를 때 불안을 느끼는 소심하고 과잉 억제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지점에서 공격성, 적대성, 분노 등의 특성과의 오히려 상반되는 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적인 고찰을 넘어, 여러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서 강박장애와 공격성이나 적대성과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즉, 강박장애 집단의 분노수준이나 공격성이 높고, 강박사고의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공격적인 내용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11,12]. 그렇다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적대적인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이러한 적대적인 주제와 관련된 충동이나 생각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강하지만 실패한 시도로 인해 강박사고나 강박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연구들에 대한 개관과 강박증상에 대한 고찰을 정리해볼 때,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높은 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한편, 과잉 억제된 특성도 보인다. 그렇다면 강박증상은 적대성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단순히 높은 적대성이 강박증상과 높은 상관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적대성에 대한 통제 노력이 역설적으로 강박증상을 강화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한다면 적대성과 강박증상의 관계에 있어 통제의 정도나 충동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즉 비교적 통제된 적대성인 내현적 적대성과 그에 비해 덜 통제

된 적대성인 외현적 적대성은 강박증상과 어떤 차별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어 충동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능하다.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강박성향과 적대성의 상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강박성향이 적대성과 그에 대한 과도한 억제 및 통제와 관련된다면 적대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적대성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외현적 적대성(overt hostility)과 간접적 공격이나 적대감 등을 포함하는 내현적 적대성(covert hostility)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13]. 강박적인 사람이 높은 적대성 수준을 보인다면, 내현적 적대성이 더욱 억제되고 통제된 형태의 적대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현적 적대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내현적 적대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적대성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적대성과 강박성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강박성향이 있는 사람이 적대성 수준이 높고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에 대해 실패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통제 실패에는 충동성이 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일하게 적대적인 강박성향자라 할지라도 충동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강박증상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적대성이 높더라도 충동성이 강할 때 더욱 강박적인 특징을 보이며, 충동성이 약한 경우에는 강박적인 증상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강박증상과 차별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을 구분 측정하여, 강박증상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높은 적대성에 대한 통제 및 조절 실패가 강박증상에 영향을 준다면, 적대성의 영향에 대해 충동성이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대성과 강박증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2. 내현적 적대성과 외현적 적대성을 구분하여 강박증상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특성이 있는 지 본다.
3.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충동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지 알아본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강박증상과 적대성

강박장애와 강박성에 대해 일찍이 다양한 학자들이 원인론이나 그 기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신분석적인 이론가들은 증상 저변의 갈등을 장애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강박장애에 있어서 역시 증상 저변에 숨어있는 주로 인생초기에 경험한 문제가 원인이라 보았다[7-10]. Freud는 인생 초기에 억압되고 숨겨졌던 적개심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이, 의식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이 강박증상이라 보았다[7]. Fenichel 역시 잠재되어있는 공격 충동에 대한 반동형성의 결과로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과도도덕성(hypermorality)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이 성격적인 면에서는 과도하게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특징으로 이어지고 증상 면에서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충동이 마음에 침투하면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권력자에 대한 ‘순종’과 ‘반항’사이의 갈등, 그리로 ‘두려움’대 ‘분노’가 강박장애의 주된 갈등이라 본 경우, 순종에 대한 요구와 두려움으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과 분노가 강박장애의 원인이라 설명하였다[14, 15].

직관적인 방식으로 강박장애를 설명하려는 저술가 및 이론가들의 주장은 이후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일부 지지되었다. 강박장애환자는 다양한 내용의 강박사고를 경험하며, 강박사고는 각 개인에게 특정적(idiosyncratic)이기는 하되, 주제의 범주를 정리해볼 수는 있다. 즉, 강박장애 환자의 강박사고는 대개 공격적, 성적, 오염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극, 신성 모독적, 실수나 사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을 범할 것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분된다[11, 16]. 이렇게 개별적이고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강박증상과 공격성 및 적대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실제 강박장애 환자의 강박사고 내용을 조사한 연구 결과 공격적인 내용의 사고 빈도(85.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또 다른 연구에서 강박장애 환자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박증상이 호전된 사례에서 분노 수준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19]. 또한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전에 품행문제나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 등 적대성과 관련된 문제가 선행하는 경향이 높게 보고되었다[20]. 임상집단이 아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강박 증상을 보고한 대학생들의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hiteside와 Abramowitz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

하여 분노 수준과 강박증상간의 상관을 발견하였으나, 우울증상의 효과를 통제하자 상관이 무의미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21, 22]. 분노 및 적대감과 같은 부정감정은 긍정편파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 보고형 검사에 추가하여 투사법 검사인 로샤 검사를 통해 분노나 적대감과 관련된 변인을 체점하고 강박증상의 상관을 검증해낸 연구도 존재한다[23].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 적대성과, 강박장애 집단 및 일반인에게 측정된 강박성향 및 강박증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적대성과 강박성의 상관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적대성 뿐 아니라 우울감 등의 부정정서 일반이 강박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반박되기도 하는 등, 분노 및 공격성 등 적대적 정서와 강박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반되고 불일치하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18,19,21,22]. 이는 적대성이라는 개념 역시 다양한 방식 및 도구로 측정 가능한 다요인의 구성개념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 2.2 적대성의 구분

적대성은 자신이나 상대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의도를 갖는 경향이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분노(anger)와 공격성(aggression)이 있는데, 우선 분노는 인간의 기본정서(basic emotion)중의 하나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규정된다[24]. 공격성 역시 특정한 대상을 향하며 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성향이며 두 개념 모두 특정한 유발자를 상정하는 정서나 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25]. 반면 적대성은 필수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상정하기보다는 타인, 자신, 또는 미정의 대상에 대해 나타내는 행동, 태도, 의도, 그리고 준비성(readines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적대성이라는 개념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적대성을 분노 적대성 대 비분노 적대성으로 구분하거나, 수동적 적대성, 직접적 적대성, 자기회피적 적대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26,27]. Bushman, Cooper, 그리고 Lemke는 Buss와 Durkee가 제작한 적대성 척도[28]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두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요인은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으로, 두 요인은 각각,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 그리고 부정성과 비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외현적 적대성은 신체적 행동이건 언어적 행동이건 공격성이 행동

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고, 내현적 적대성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적대성이라 할 수 있다[13].

강박장애의 경우 높은 적대성과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대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나 사고 내용 등이 주된 특징으로 외현적 적대성보다는 내현적 적대성이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이라는 적대성의 분류를 채택하고 Buss와 Durkey의 적대성 척도[28]를 사용하여 강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3 강박증상과 충동성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흔히 과잉 통제되고 과잉 억제되어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기술, 정의된다[29]. 이들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위험회피 경향을 나타낸다. 강박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마술적 사고, 수 해아리기 등은 부정적인 일의 발생을 방지하고 상황이나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또한 제의적 행위, 확인, 씻기, 중화 등의 강박 행동 역시 오염이나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30]. 이렇게 억제되고 통제된 특성에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주요 증상이자 문제는 억제의 실패와 통제의 실패 그 자체에 다르지 않다. 즉 결국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강박증상과 충동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연구에서도 반응억제의 어려움, 인지적 통제의 어려움, 높은 충동성 등을 나타냈다. 또한 강박장애에 충동조절장애가 공병하는 경우 더욱 강박증상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탈억제(disinhibition)가 주문제인 다양한 장애들,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뚜렛장애, 발모광 등은 강박장애와 공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31-34]

위와 같이 강박장애와 충동성의 정적 관련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그와는 대치되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즉, 다른 불안장애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강박장애 환자들의 충동성이 더 높지 않았고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씻기와 확인 증상은 충동성과 오히려 부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다[35].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충동성은 가공적인 결과(artifact)에 불과하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 회피, 억제된 성향, 미리 예견하고 숙고하는 성향들과 관련이 된다는 연구 결과나, 대체적인 충동성 측정치를 사용한 연구들도 강박장애와 충동성의 정적 관련성에 반하는 증거들이다[36-40]. 이상의 연구와 보고들을 종합할 때, 강박장애 환자들이 더 충동적이라거나 덜 충동적이라고 양자택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보다는 충동성이 강박적인 성향과 상호작용할 가능성, 강박적인 성향의 발현, 악화, 또는 억제 실패 등에 있어서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박성향과 충동성이 배타적이고 상호배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강박관련장애라는 스펙트럼 상에서 충동의 극단과 강박의 극단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 또한 강박성과 충동성을 모두 독립적인 변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적대성과 강박성의 관계에서 충동성이 어떻게 조절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154명의 학생이 연구용 설문을 작성해 주었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네 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150명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150명의 학생 중 여자가 109명(72.7%), 남자가 41명(27.3%)이었고 평균연령은 38.31세( $SD=9.60$ )이었다.

### 3.2 측정도구

#### 3.2.1 적대성

Buss와 Durkee의 Hostility Scale(BDHS)은 적대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척도[28]이며 본 연구에서는 노안녕이 번안한 한국판[41]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75개의 Likert식 5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이 포함되는 외현적 적대성(Overt hostility)과 흥분, 적대감, 간접적 공격성, 죄의식 등이 포함되는 내현적 적대성(Covert hostility)의 요인을 구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는 .92였다.

#### 3.2.2 강박증상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인 OCI-R(Revised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한국판[42]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강박사고를 측정하는 척도와 강박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분되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이었다.

### 3.2.3 충동성

충동성척도는 Barratt이 개발하고 이현수가 번안한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ity Scale: BIS)[4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일관성 계수는 .84였다.

### 3.3 자료 수집 및 상관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의 강의계 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공지를 올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웹상의 설문사이트에서 설문을 완료하였다. 설문 시에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았다.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 20.0 버전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 간 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4 연구모형의 검증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각각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강박증상에 대해 공히 고유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보기위해 Fig.1과 Fig.2에 제시한 모형에 대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MMR)을 시행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측정치에서 평균을 뺀 점수(mean centering)를 사용하였다. 또한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 각각에 대해 충동성 측정치를 곱하여 조절회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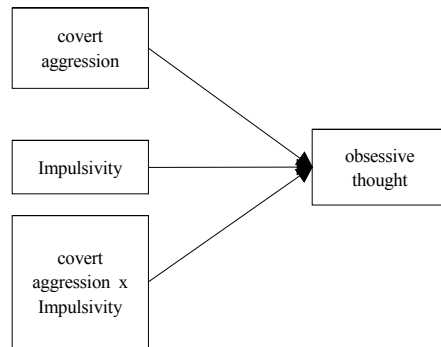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model of Impulsivity on covert aggression's effect on obsessive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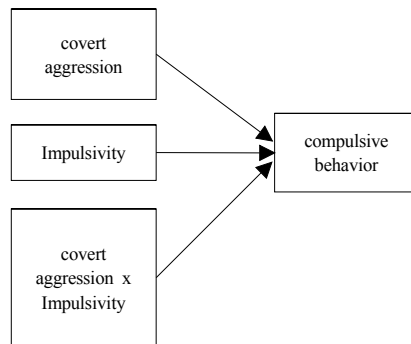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model of Impulsivity on covert aggression's effect on compulsive behavior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강박증상, 적대성 및 충동성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정보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hostility, and impulsivity.

Variables	Mean (SD)	Skewnes	Kurtosis
Obsessive Compulsive Sx	30.87 (9.48)	.701	.027
Obsession	9.34 (3.45)	.134	.150
Compulsion	16.15 (5.66)	.118	.112
Overt hostility	67.49 (11.13)	.588	1.897
Covert hostility	48.52 (10.99)	.514	.138
Impulsivity	57.01 (11.13)	.398	.569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척도 점수들 간 상관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hostility and impulsivity

Variables	1	2	3	4
1	-			
2	.667**	-		
3	.364**	.167	-	
4	.580**	.352**	.578**	-
5	-.063	-.287**	.190*	.185

1. Obsessive Thinking, 2. Compulsive Behavior, 3. Overt Hostility, 4. Covert Hostility, 5. Impulsivity.  
\* $p < .05$ , \*\* $p < .01$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강박사고는 강박 행동, 외현적 적대성, 내현적 적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강박행동은 내현적 적대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충동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외현적 적대성은 내현적 적대성 및 충동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내현적 적대성과 충동성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강박사고는 외현적 및 내현적 적대성 모두와 상관이 있었으나 충동성과의 유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강박행동은 외현적 적대성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내현적 적대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충동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현적 적대성은 충동성과의 상관을 보인 반면 내현적 적대성과 충동성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 4.2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확인 결과, 분산팽창계수 값(1.53)은 10보다 현저하게 작고 공차한계 값(.66) 역시 0.1보다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4에 제시하였다.

**Table 3.** The effects of hostility variables on obsessive thinking

Variables	Coefficient B	beta	t	P value	R <sup>2</sup>	F
1	24.295		3.162	.007		
2	.013	.042	.431	.667	.339	26.674
3	.166	.557	5.699	.000		

1.Constant, 2.Overt hostility, 3.Covert hostility  
\* $p < .05$ , \*\* $p < .01$

적대성 변인들이 강박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설명력( $R^2$ )은 .339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투입된 예측변인들 중에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적 적대성의 고유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The effects of hostility variables on compulsive behavior

Variables	Coefficient B	beta	t	P value	R <sup>2</sup>	F
1	8.141		2.593	.011		
2	-.008	-.017	-.153	.879	.126	7.397**
3	.173	.364	3.237	.002		

1.Constant, 2.Overt hostility, 3.Covert hostility  
\* $p < .05$ , \*\* $p < .01$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 $R^2$ )은 .126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강박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현적 적대성의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고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충동성이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의 충동성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5, 6과 같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impulsivity on covert hostility's effect on obsessive thinking

PV	DV					
	step 1		step2		step3	
	B( $\beta$ )	t	B( $\beta$ )	t	B( $\beta$ )	t
CA	.18(.57)	7.34**	1.19(.61)	7.952**	.149(.46)	2.24*
Imp			-.18(.41)	-4.786**	-.11(.34)	-.94
CHx Imp					.00(.21)	1.72*
R <sup>2</sup>	.331		.376		.381	
$\Delta R^2$	.331		.045		.011	
F	53.95***		32.52**		21.55**	

PV: predicting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CH: Covert hostility, Imp:Impulsivity,  
\*  $p < .05$  \*\*  $p < .01$ .

우선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에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서의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보기위한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었다. 내현적 적대성 수준이 높을수록 강박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3.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F=53.95, p<.01$ ). 2단계에서는 충동성을 투입하였고, 충동성이 강박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7.6%이고 충동성 역시 강박사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F=32.52, p<.0$ ). 3단계 모형에서는 내현적 적대성과 충동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강박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5$ ). 이 모델의 설명력은 38.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1.55, p<.01$ ). 각 모형에서  $R^2$ 은 33.1%, 37.6%, 38.1%로 점차 증가하였고 유의확률 변화량이 .037로, 충동성은 내현적 적대성과 강박사고간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사고에 대한 영향에서 충동성의 조절역할에 대한 도식은 Fig.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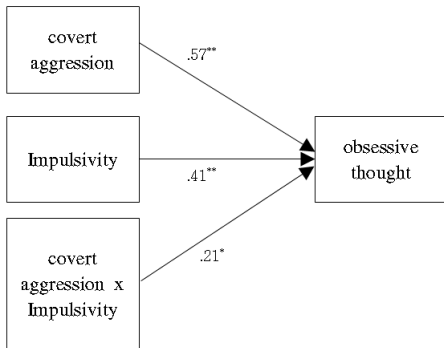


Fig.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riticism on personal distress' effect on depression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impulsivity on covert hostility's effect on compulsive behavior

PV	DV					
	step 1		step2		step3	
	B(β)	t	B(β)	t	B(β)	t
CH	.18(.47)	3.85**	.21(.04)	4.92**	.12(.23)	.54
Imp			-.20(.44)	-4.6**	-.28(.21)	-1.32
CHx Imp					.00(.04)	.37
R <sup>2</sup>	.121		.266		.267	
ΔR <sup>2</sup>	.121		.145		.001	
F	14.825***		19.37**		11.45*	

PV: predicting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CH: Covert hostility, Imp: Impulsivity, \*  $p < .05$  \*\*  $p < .01$ .

다음으로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 내현적 적대성은 강박사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모형설명력은 12.1%였다( $F=14.82, p<.01$ ). 2단계에서 충동성 변수를 투입한 결과 모형설명력은 26.6%로 유의미하였다( $F=19.37, p<.01$ ). 3단계 모형에서는 내현적 적대성과 충동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고 모형설명력은 26.7%( $F=11.45, p<.05$ )였다. 단계별 모형에서  $R^2$ 이 점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33.1%, 37.6%, 38.1%) 3단계 유의확률 변화량이 .718로 높아서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적대성을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으로 구분하여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충동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인들의 상관분석에서 강박사고는 외현적 적대성 및 내현적 적대성과 공히 정적상관을 보였다. 적대성의 분류에 관계없이 강박사고와의 관련성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강박행동은 내현적 적대성과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외현적 적대성은 신체적 적대성과 언어적 적대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되는 적대성이다. 이러한 적대성은 강박행동이 아니라 강박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이다. 이는 강박행동이 주로 '정돈', '씻기', '확인', '반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정리, 억제, 절제 등의 주제를 반영한다는 점과의 관련성이 시사된다. 즉 강박행동이 주된 증상인 경우, 강박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 적대성 등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고, 내적인 적대성(내현적 적대성)은 잔존하는 가운데, 외적으로 표현되는 적대성 역시 통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현적인 적대성과 강박사고 및 행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외현적인 적대성과 강박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가운데, 이들 적대성 변수의 강박증상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적대성만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내현적 적대성과 강박증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인 확인을 하고자 충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조절회귀분

석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사고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강박사고에 대해 내현적 적대성이 정적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충동성의 고저에 따라 강박사고의 수준도 심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현적인 적대성이 유사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충동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강박사고 증상도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대성과 강박장애, 또는 강박증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대성과 강박의 관련성이 입증되었으나, 적대성의 종류나 강박장애나 증상의 아형에 따라 그에 반하는 연구 또한 존재했다[34]. 본 연구에서는 적대성과 강박증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적대성을 외현적 적대성과 내현적 적대성으로 구분하였고, 강박증상 역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적대성은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외현적 적대성은 강박사고와의 관련성만 보였다. 적대성의 강박증상에 대한 영향의 회귀분석에서는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증상에 대한 영향만이 유의미하였고 외현적 적대성의 고유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외현적 적대성보다는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대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모두 불안이나 적대성 등 부정적인 내적 상태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면 볼 때, 표현하지 못했으나 심적통제나 증상을 통한 통제에는 실패한 내적 적대성이 강박증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30]. 이는 이미 억압되고 무의식으로 밀려난 부정적 감정이나 갈등이 강박증상과 관련된다는 고전적인 고찰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7,8,16]. 그 외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사회적 행동이나 행동화(acting out) 문제 등 외적으로 표현된 적대성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그 외 적대적 사고, 적대감 수준 등 행동화하여 표현하지 않은 적대성 측정치는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증상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의 실패라 할 수 있는 충동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충동성은 인지조절의 실패, 행동 조절의 실패 등, 자기 통제의 실패를 의미하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역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통제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충동성은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사고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인 적대성의 경우 충동성은 강박사고 및 강박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현적 적대성의 강박행동에 대한 영향에도 관련되지 않았다. 내적으로 경험하되 표현은 하지 못하는 적대성인 내현적 적대성의 경우 충동성이 높을수록 강박사고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심상, 반복적 사고, 충동 등으로 이뤄지는 강박사고는 내현적 적대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가운데, 충동성이 강한 경우에는 이것이 증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영향을 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박장애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고, 그 하위 유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최근까지 지속된 논란이다[44]. 특히 진단 기준 면에서도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위범주에서 독립하고, 하위 유형인 저장강박이 별도의 장애로 구분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강박증상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지는 않았으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구분하여 적대성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은 적대성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강박장애가 증상군에 따라 이질적인 아형을 포함한 복잡한 장애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적으로 표현되는 적대성보다는 사고, 의도, 태도 등의 차원에 반영되는 내현적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높은 적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표현되고 해소되지 못하는 방식의 적대성이 강박증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증상이나 그 외 부적응적인 행동이 아닌, 적응적 방식이나 통로를 통해 이러한 성향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박장애나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이나 명상 등, 자기조절 및 감정해소에 치중한 기법이 강박장애의 치료 및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와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45,46]. 아울러 앞서 지적한 내현적 적대성의 적응적인 표현과 해소에 있어서는 충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적대성, 특히 내현적인 적대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되, 이의 표현은 주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어로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의 강박적 증상의 심화로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내현적인 적대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충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흔히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충동,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는 충동 등을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충동 자체가 실행하는 공격이나 위험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불안과 강박증상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대성을 포함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충동을 잘 인지하고 그 위험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부적응적인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기보다는 안정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온라인 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확장하여 실제 임상적 수준의 강박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대성과 강박증상, 그리고 충동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 References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Publisher, p. 296, 2013.
- [2] E. Hollander, S. Greenwald, D. Neville, J. Johnson, C. D. Hornig, M. M. Weissman, "Uncomplicated and comorbi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an epidemiologic sample", *Depression and Anxiety*, vol. 4, pp. 111-119, 1996-1997  
DOI: [https://doi.org/10.1002/\(SICI\)1520-6394\(1996\)4:3<111::AID-DA3>3.0.CO;2-J](https://doi.org/10.1002/(SICI)1520-6394(1996)4:3<111::AID-DA3>3.0.CO;2-J)
- [3] B. R. Aronowitz, E. Hollander, C. DeCaria, & L. Cohen, L, "Neuropsycholog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reliminary findings", *Neuropsychiatry, Neuropsychology, and Behavioral Neurology*, vol. 7, pp. 81-86, 1994.
- [4] O. J. Bienvenu, J. F. Samuels, M. A. Riddle, R. Hoehn-Saric, & K. Y. Liang, & B. A. Cullen, "The relationship of 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to possible spectrum disorders: results from a family study", *Biological Psychiatry*, vol. 48, pp. 287 - 93. 2000.  
DOI: [https://doi.org/10.1016/S0006-3223\(00\)00831-3](https://doi.org/10.1016/S0006-3223(00)00831-3)
- [5] S. R. Chamberlain, A. D. Blackwell, N. A. Fineberg, T. W. Robbins, & B. J. Sahakian, "The neuropsycholog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the importance of failures in cognitive and behavioural inhibition as candidate endophenotypic marker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vol. 29, pp. 399-419. 2005.  
DOI: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04.11.006>
- [6] S. R. Chamberlain, N. A. Fineberg, L. A. Menzies, A. D. Blackwell, E. T. Bullmore, T. W. Robbins, & B. J. Sahakian. "Impaired cognitive flexibility and motor inhibition in unaffected first-degree relatives of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4, pp. 335-338, 2005.  
DOI: <https://doi.org/10.1176/ajp.2007.164.2.335>
- [7] S. Moritz, S. Kempke, P., Luyten, S, Randjbar, & L. Jelinek, "Was Freud partly right on 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OCD)? Investigation of latent aggression in OCD", *Psychiatry Research*, vol. 187, pp. 180-184, 2010.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0.09.007>
- [8] L. Salzman L. "The obsessive personality: origins, dynamics and therapy" pp.442-443, Science House, 1968.
- [9] D. W. Krueger "On compulsive shopping and spending: A psychodynamic inquir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 42, pp. 574-584, 1988.
- [10] J. C. Perry, "Defense Mechanism in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In Oldham, J.M., Hollander, E., & Skodol, A.E(Ed.),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 195-230, 1996.
- [11] Lee, H. J., & Kwon, S. M. "Two different types of obsession: Autogenous obsessions and reactive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 Therapy*, vol. 41, pp. 11-29, 2003.  
DOI: [https://doi.org/10.1016/S0005-7967\(01\)00101-2](https://doi.org/10.1016/S0005-7967(01)00101-2)
- [12] D. J. Stein, E. Hollander, C. DeCaria, & S. Truongold, "OCD: a disorder with anxiety, aggression, impulsivity, and depressed mood", *Psychiatric Research*, vol. 36, pp. 237-239, 1991.  
DOI: [https://doi.org/10.1016/0165-1781\(91\)90135-C](https://doi.org/10.1016/0165-1781(91)90135-C)
- [13] B. J. Bushman, H. M. Cooper, K. M. Lemke, "Meta-analysis of factor analysis: An illustration using the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7, pp. 344-349, 1991.
- [14] M. A. Besharat, Z. S. Kamali, "Predicting obsessions and compulsions according to superego and ego characteristics: A comparison between scrupulosity and non-religious obsessive - compulsive symptom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9, p 73-78, 2016.  
DOI: <https://doi.org/10.1016/j.ajp.2016.01.003>
- [15] O. Fenichel, "the Psychoanalytic review of neurosis". Routledg, 1946. M. T. Moore, & D. M. Fresco, "Depressive realism: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2. pp. 496-509, 2012.
- [16] S. Moritz, K. Wahl, A. Ertle, L. Jelinek, M. Hauschildt, R. Klinge, I. Hand, "Neither saints nor wolves in disguise ambivalent interperson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Behavioral Modification*, vol. 33, pp. 274 - 292, 2009.  
DOI: <https://doi.org/10.1177/0145445508327444>

- [17] M. T. Williams, S. G. Farris, E. Turheimer, A. Pinto, K. Ozanick, M. E. Franklen, M. Liebowitz, H. B. Simpson, & E. B. Foa, "Myth of the pure obsessional typ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vol. 28, pp. 495-500, 2011.  
DOI: <https://doi.org/10.1002/da.20820>
- [18] D. G. Millar, "Hostile emotion and obsessional neurosis", *Psychological medicine*, vol. 13, pp. 813-819, 1983.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00051527>
- [19] R. Hoehn-Saric, V. C. Barksdale, "Impulsivity scores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43, pp. 177-182, 1983.  
DOI: <https://doi.org/10.1192/bjp.143.2.177>
- [20] D. J. Stein, E. Hollander, D. Simeon, L. Cohen, "Impulsivity scores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82, pp. 240-241, 1994.  
DOI: <https://doi.org/10.1097/00005053-199404000-00009>
- [21] S. P. Whiteside, & J. S. Abramowitz, "The expression of anger and its relationship to symptoms and cognit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vol. 21, pp. 106-111, 2005.  
DOI: <https://doi.org/10.1002/da.20066>
- [22] A. S. Radomsky, A. R. Ashbaugh, L. A. Gelfand, "Relationships between anger, symptoms, and cognitive factors in OCD checker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45, pp. 2712-2725, 2007.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7.07.009>
- [23] H. Y. Choi & M. S. Shin, "The Anger-pattern of OCD patient in MMPI-2 and Rorschach Tes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7, pp. 505-522, 2008.
- [24] P. Ekman, W. V. Wallace, M. O'Sullivan, A. Chan, I. Diacyanni-Tarlatzis, K. Heider, R. Krause, W. A. Lecompte, T. Pitcairn, P. E. Ricci-Bitti, K. Scherer, M. Tomita, & A. Tzavaras,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udgment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pp. 712-717,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3.4.712>
- [25] J. M. Ramirez & J. M. Andreu, "Aggression, and some related psychological constructs (anger, hostility, and impulsivity) Some comments from a research project",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vol. 30, pp. 276-29, 2006.  
DOI: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05.04.015>
- [26] K. M. Lagerspetz, K. Bjorkqvist, & T. Peltonen, "Is indirect aggression typical of females?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veness in 11-to 12-year-old children", *Aggressive Behaviors*, vol. 14, pp. 403-414, 1988.  
DOI: [https://doi.org/10.1002/1098-2337\(1988\)14:6<403::AID-AB2480140602>3.0.CO;2-D](https://doi.org/10.1002/1098-2337(1988)14:6<403::AID-AB2480140602>3.0.CO;2-D)
- [27] R. B. Cairns, B. D. Cairns, H. J. Neckeman, L. L. Ferguson, J. L. Garipey, "Growth and aggression :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pp. 320-330, 1989.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5.2.320>
- [28] A. H. Buss, & a.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1, pp. 343-349, 1957.  
DOI: <https://doi.org/10.1037/h0046900>
- [29] J. Samuels, G. Nestadt, O. J. Bienvenu, P. T. Costa, M. A. Riddle, K. Y. Liang, R. Hoehn-Saric, M. A. Grados, B. A. Cullen, "Personality disorders and normal personality dimen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77, pp. 457-462, 2000.  
DOI: <https://doi.org/10.1192/bjp.177.5.457>
- [30] M. H. Freeston, R. Ladouceur, "What do patients do with their obsessive though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35, pp. 335-348, 1997.  
DOI: [https://doi.org/10.1016/S0005-7967\(96\)00094-0](https://doi.org/10.1016/S0005-7967(96)00094-0)
- [31] P. G. Enticott, J. R. Ogloff, & J. L. Bradshaw, "Associations between laboratory measures of executive inhibitory control and self-reporte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1, pp. 285-294, 2006.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6.01.011>
- [32] Y. R. Ferrão, V. P. Almeida, N. R. edin, N. R. Ellis, & B. D'Arrigo,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in patients with trichotillomania or skin picking compared with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47, pp. 282-288, 2006.  
DOI: <https://doi.org/10.1016/j.comppsy.2005.11.005>
- [33] J. E. Grant, M. C. Mancebo, A. Pinto, J. L. Eisen, & S. A. Rasmussen, "Impulse control disorders in adults with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40, pp. 494-501, 2006.  
DOI: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05.11.005>
- [34] N. C. Raymond, E. Coleman, & M. H. Miner, "Psychiatric comorbidity and compulsive/impulsive traits in compulsive sexual behavior",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44, pp. 370-380, 2003.  
DOI: [https://doi.org/10.1016/S0010-440X\(03\)00110-X](https://doi.org/10.1016/S0010-440X(03)00110-X)
- [35] L. J. Summerfeldt, K. Hood, M. M. Antony, M. A. Richter, P. Swinson, "Impulsivit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mparisons with other anxiety disorders and within tic-related subgrou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6, pp. 539-553, 2004.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13-2](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13-2)
- [36] P. Alonso, J. M. Menchón, S. Jiménez, J. Segalás, D. Mataix-Cols, N. Jaurieta, J. Labad, J. Vallejo, N. Cardoner, J. Pujol, "Personality dimens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 to clinical variables", *Psychiatry Research*, vol. 157, pp. 159-168, 2008.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6.06.003>
- [37] H. Tavares, & V. Gentil, "Pathological gambling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owards a spectrum of disorders of volition", vol. 29, pp. 107-117, 2007.
- [38] K. D. Wu, L. A. Clark, D. Watson, "Relations betwee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personality: beyond Axis I-Axis II comorbidity", vol. 20, pp. 695-717, 2006.
- [39] G. Shoval, G. Zalsman, L. Sher, A. Apter, A. Weizma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patient adolescents with severe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vol. 23, pp. 62-70, 2006.  
DOI: <https://doi.org/10.1002/da.20135>
- [40] M. A. Richter, L. J. Summerfeldt, R. T. Joffe, R. P. Swinson,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vol. 65, pp. 185-188, 1996.

DOI: [https://doi.org/10.1016/S0165-1781\(96\)02944-7](https://doi.org/10.1016/S0165-1781(96)02944-7)

- [41] A. N. Noh, & K. J. Hong,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4, pp. 19-31, 1983.
- [42] J. S. Lim, S. J. Kim, W. T. Jeon, K. R. Cha, J. H. Park, C. H.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in a non-clinical sample", *Yonsei Medical Journal*, vol. 49, pp. 909-916, 2008.  
DOI: <https://doi.org/10.3349/ymj.2008.49.6.909>
- [43] J. H. Patton, M. S. Stanford, E. S. Barratt.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1, 768-774, 1995.  
DOI: [https://doi.org/10.1002/1097-4679\(199511\)51:6<768::AID-JCLP2270510607>3.0.CO;2-1](https://doi.org/10.1002/1097-4679(199511)51:6<768::AID-JCLP2270510607>3.0.CO;2-1)
- [44] Hollander, E., Kim, S., Braun, A., Simeon, D., & Zohar, J. (2009). Cross-cutting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OCD spectrum, *Psychiatry Research*, 170(1), 3-6.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8.07.015>
- [45] E. Gorbis, J. O'Neill, J. Sterner, J. Yip, & C. Molnar, "Mindfulness-based behavioral therapy(MBBT) for OCD" Available From:  
[http://www.hope4ocd.com/downloads/OCF2007\\_MBBT.pdf](http://www.hope4ocd.com/downloads/OCF2007_MBBT.pdf) (accessed Nov., 20, 2017)
- [46] D. S. Shannahoff-Khalsa, L. E. Ray, S. Levine & C. C. Galle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Yogic Meditation Techniques for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NS Spectrum*, vol. 4, pp. 34-47, 2014.  
DOI: <https://doi.org/10.1017/S1092852900006805>

---

## 최혜라(Hyera Choi)

[정회원]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수료 (임상 및 상담심리학)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 교육, 임상심리